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30과.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예언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전쟁 이야기로 이어진 교회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하늘에서 반역한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에 대하여 다니엘서에 계시된 내용을 더 자세히 보여주어서 전쟁의 실상을 계시한다. 그것이 계시록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표상적 계시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며, 올바른 대처를 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아보자.

1. 용 곧 사단은 성도와 싸우려고 어디에 섰는가?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는 세력은 사단과 그에게 속한 세력이다. 그것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바다로 많은 무리들을 표상하지만 모래 또한 많은 무리들을 표상한다. 이것을 용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배경으로 용이 싸우려는 대상은 남은 자손이다. 남았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표현이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맞아 싸워야 할 상대는 엄청난 수와 강한 세력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2. 어떻게 생긴 짐승이 어디서 나왔는가?

[계13:1,2]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띠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모자이크한 모양이다. 바다에서 나온다. 이것은 모래 위에서 있는 용이 불리낸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를 그에게 준다. 이것이 용을 대신하여 용을 위한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용의 대리자가 된다. 이것은 이 네 마리의 바탕과 특성으로 용을 대리할 것이다. 그는 열 뿔의 세력의 옹호를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는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와, 입에 갈빗대 세 개를 물고 한 발을 들고 있는 곰과 머리가 넷이요 새의 날개 넷이 달린 표범과 머리에 열 뿔이 달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차례대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22과에서 공부한 내용이다.

그런데 계13장의 이 짐승은 이 네 마리를 합성한 모습이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바다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것은 전쟁이 없이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특성을 다 가지고 나타나는 나라인 것을 보여준다. 그 바탕은 표범인데, 이 나라의 바탕이 헬라라는 것이다. 즉 헬라 사상이 바탕이고 행사는 페르시아적이며 외치기는 바벨론적이라는 것이다. 법률적 잔인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외침의 담대함을 가진 것이다.

3.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오래 그 권세를 휘두를 것인가?

[계13:5-7]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은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런 나라를 역사에서 찾으면 교황권 밖에 없다. 42달은 3년 반이며, 날 수로는 1260일이다. 이것을 1일 1년 원리로 이해하면 1260년이 된다. 이런 긴 기간 동안 동일 왕권이 계속 지배하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지배한 일은 역사상 전무한 일이며 또한 후무할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이 세력은 말씀에 기록된 일들을 자행하였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도덕적 왕국을 지속해나간다. 사람들은 바로 이 도덕적 모습에 속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종교가 도덕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세력의 정체를 바르게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성경의 종교는 생명과 존재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가장 고상한 도덕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 세력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4. 이 짐승은 그 생김새 외에 어떤 특징을 또 지녔는가?

[계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1798년 42달 기간이 끝날 때 상하여죽게 되었다. 즉 피우스(비오) 6세가 나폴레옹의 장군인 베르띠에 장군에게 납치되어 파리로 압송된 것이다. 당시 나폴레옹은 이 자리는 다시 계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죽게 되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러나 1929년 이태리 수상 무소리니와 교황 비오(피우스) 11세 사이에 라테란 조약이 맺어지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 지금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1929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지에 실린 교황과 무소리니의 라테란 조약 성사에 대한 기사에서 “상처가 나움에 대하여”라는 말을 썼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다.

5. 세상은 이 짐승에 대하여 어떤 칭송의 말을 하는가?

[계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 즉 사단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미가엘이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뜻이다. 그런데 세상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외친다. 미가엘을 흉내 내는 외침인 것이다. 12장에서 용이 미가엘에게 패하여 땅으로 내어쫓겼는데, 이 사단은 이 땅에 와서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라고 외친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그들 스스로 외치는 것은 누가 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같으냐? 라고 외치는 것이다. 세상이 그를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칭송하며 경배한다. 이 짐승에게 경배할 때 그 배후에서 용이 경배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눅9:48; 요5:23 참

고)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6.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인가?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한글 킹제임스역)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한바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950년 번역판

결국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와 신앙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신앙 없이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제도적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는 뜻이다. 예언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된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살았는가를 묻고 있다.

7. 또 어떤 짐승이 어디서 올라 오는가?

[계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짐승은 어린양 곧 예수 같은 모습으로 땅에서 올라 왔다. 땅은 12장에서 용의 꾀박의 물을 삼킨 곳이다. 그것은 신대륙이다. 그러므로 신대륙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일어난 나라를 찾으면 된다. 그것은 북미 합중국이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8장의 두 마리 짐승의 성질(양과 염소)을 가진 것을 보여준다. 이 짐승들은 다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들이다. 그러나 다니엘 8장의 둘째 짐승인 염소에게서 작은 뿔이 나와서 심히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 같이 계시록의 이 짐승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양과 같이 예수님 정신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될 것임을 나타낸다.

페르시아는 유대민족을 해방시켰다. 미국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교를 꾀박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나 헬라 정신에 바탕을 둔 로마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나온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진 것 같이 미국이 그런 일을 할 것을 계시하고 있다.

8. 이 짐승은 어떻게 변하며 누구를 위하여 일 하는가?

[계13:11,12]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린양같이 시작하여 용처럼 말하는 것은 속죄일에 드리는 숫염소처럼 나타나서 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 다니엘 8장의 짐승의 전철을 밟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직임을 수행할 것이다. 즉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할 것임을

게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짓 하나님 노릇을 하는 용, 곧 사단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기만이 있는 것이다.

9.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행하여 먼저 나온 짐승을 도울 것인가?

[계13:13,14]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직접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를 위한 대리 형상 곧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게 하므로 교황권을 높이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우상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부처상이나,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살아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돌이나 나무나 청동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은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단체일 수 있을 것이다.

계13장의 세 마리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성령을 모방한다.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광경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모방하여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신다.

성령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조직하였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기관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창설하시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게 한다. 교회의 기능이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성령이 친히 경배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령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곧 성령에게도 경배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 같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만드는 우상은 교회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상은 교회를 모방한 짐승을 위한 교회일 것이다. 그것은 참 교회와 비슷해서 구별하기 힘들 것이다. 계17:5에 큰 바벨론은 땅에 있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드는 우상이 바로 이 딸들이다. 바벨론과 같은 정신을 가진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 용과 짐승을 경배하라는 운동이 크게 전개될 것이다.

10.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어떻게 되도록 하며,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결과는 무엇인가?

[계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몹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활동하게 한다고 계시하였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표상하는 짐승이다.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이다. 말하는 우상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강요하는 우상이다. 이것은 다니

엘 6장에 나타난 메데 사람 다리오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한 것이 역사적 예표이다. 다리오는 말하는 우상이며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우상인데, 실제로 다리오는 우상노릇만 하였고, 그 우상을 통하여 권세를 행사한 것은 우상을 만들도록 강요한 대신들이었다.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만드는 우상의 성질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우상의 배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이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용이다.

[단6:5-7]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6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의 율법과 바사왕의 율법의 대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것처럼 짐승의 우상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과 대결할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은 에스더 시대에도 있었다.

[에3: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단서로 그들의 법률을 빌미로 삼았다. 에스더서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환난의 성질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여호오라는 말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친 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께서 성소에서 중보를 끝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호소해도 하나님 앞에 대언할 중보가 없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칭호가 없는 것은 이런 사정을 암시하는 것이다.

11. 먼저 나온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될 것인가?

[계13:16-18]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육이니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여기 계시된 말씀과 그 해석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이다. 그 이름을 사람들이 세는 숫자로 세어서 666이 된다는 말이다. 이런 수를 바르게 셀 수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이다.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이다. 이 표의 성질을 분명히 알아야 그 실상을 알게 된다. 그것은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표는 경배와 관련된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경제권을 박탈하기 위한 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경제권과 관령이 있다. 그러나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경배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 숫자는 솔로몬의 세입의 금 달란트 숫자와 같다.

[왕상10:14]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육백육십육 금 달란트요.

[대하9:13]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육백육십육 금 달란트요.

계시록의 666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수입 문제가 걸린 것이라는 뜻이다. TO 경제 혼란이라는 책에서 Dr. Larry Bates는 바키카이 하는 주요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활동이라고 하였다.

“만일 당신에게 질문하기를 교황청(Vatican)의 주요 산업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당신이 대답하겠느냐? 미국 CIA에서 집필한 World Fact Book에 의하면 vatican의 주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Dr. Larry Bates “The New Economic Disorder(새 경제 혼란) 52p.”>

666이라는 수가 수입과 관련된 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표가 된다는 말과 의미가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숫자는 동시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성질을 잘 드러내는데 그들이 세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나타낸다. 물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도 이 숫자의 장본인을 알게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12. 짐승의 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 살피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예언상 짐승은 나라를 뜻한다.

[단7:17,23]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짐승은 나라이다. 다니엘서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곧 왕국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나라의 표이다.

둘째, 이 나라는 경배 받기를 원하는 나라이다.

[계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이 나라는 종교적 나라이다. 여기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έω)”로서 요한복음 4:24에 나오는 예배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자신이 그런 예배 받으려는 나라이다.

셋째, 이 나라는 하나님을 훼방하는 나라이다.

[계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이 나라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예배 받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훼방할 수밖에 없다.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는 것은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인데 “블라스페메오(βλασφημέω)”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여 하나님이 사람과 같거나 사람보다 못하다고 할 때 해당되는 말이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훼방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참람하다고 번역하였다.

[요10: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참람한 것이다. 곧 하나님을 훼방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왕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이다.

넷째, 이 나라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나라이다.

[계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우려는 세력은 바로 용의 세력이다(계12:17). 그러므로 이 나라는 용인 사단의 하수인인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다. 성도들과 싸우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기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오류를 진리에 섞어놓는다.

다섯째, 이 나라는 자기 국가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각 족속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이다.

[계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한 정권이 여러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려면 웬만한 국력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여러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굴레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종교적 능력과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이 나라는 42개월 동안 전성기를 누리는 나라이다.

[계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개월은 햇수로는 3년 6개월이며 날수로는 1260일이다. 1일 1년 원칙을 따라 이 기간은 1260년이다. 동일 왕권이 1260년을 계속한 나라가 정치적 나라로는 이 세상에 없다. 더구나 그 나라는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같은 왕권이 계속되는 나라이다. 종교와 정치의 권세를 함께 가지지 않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일곱째, 이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됨으로 더 강해지는 나라이다.

[계13:3,4]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 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나라는 1260년이 지나면서 이 나라는 망할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 상처가 회복됨으로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더욱 존경을 받는 나라이다.

여덟째, 이 나라의 표는 그 나라를 경배하도록 하는 표이다.

[계13:15-17]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

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표는 경배를 위한 표이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하여 만든 표인 것이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권을 박탈하여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위협하고 그래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짐승의 표는 이런 표이다. 그러므로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나 소시알시큐리티 번호 같은 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 짐승의 표는 경배와 관련된 것이다. 사단은 이 표가 경배와 관련된 것을 외면하도록 자꾸 경제문제에 치중하도록 생각을 이끌고 있다. 속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제시한 위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나라를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나라이다. 곧 교황국이다. 그것은 로마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군림하는 종교적 나라이다.

이 나라가 그들을 받들도록 표를 주는 것이다. 이 세력은 경배를 받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였다. 그러므로 경배를 위한 그 표도 성경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거의 분별할 수 없도록 모방하여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표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알고 경배하는데 배후에서 진짜로 경배를 받는 것은 용인 사단인 것이다.

우리가 이 표를 분명히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그는 하나님을 모방하여 군림하기 때문이다.

13.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가 무엇인가?

[출31:13-1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14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 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 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겔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로 제칠일 안식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표인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집안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를 나타내는 성(姓)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제칠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집안사람이 아닌 것이다.

안식일은 날짜이다. 그러므로 짐승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표도 날짜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날짜로 주어진다. 곧 예배를

위한 날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세력이 역사의 종말을 주장한다. 이 세력이 전면에서 나섰고 경배를 위하여 이 날짜인 표를 강요하게 되는 날이 이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기일이 아주 가까운 것이다.

우리는 예언으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짓도록 하자.